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 포토보이스의 적용

A Photo-Voice Study on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이은미 (Eun Mi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Qualitative and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is photo-voice method has been applied for this study with 9 participants. Main themes- self identity, career exploration, christian faith- are given to the participants who were asked to take or make choices of photos which they would consider its appropriateness with the themes for the photo-voice interview. 24 photos have been chosen and 18 theme clusters appe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theme 'who am I' was analysed as 6 sub-themes. 'Ongoing process of choice and decision making', 'Not being myself', 'Knowing what would I be doing in the future but not specifically', 'Challenging person', 'Over self-conscious about others'. Secondly, the theme was 'With what kind of person am I recognized to my significant others?'. 5 sub-themes are 'A smile person', 'My unique style', 'A leader', 'Like a racing horse', 'Integrity and soundness'. Thirdly, the theme was 'what kind of future do you imagine?' 2 sub-themes for this are 'My career plan is motivated from the adolescence and college life' and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Finally, the theme was 'what does christian faith mean to you?' 5 sub-themes are as follows. 'Driving force of my life', 'My real attribute and factor of reflecting myself', 'Dramatic turning point of my life', 'Faith mirrors my future and values of life', 'Commitment on faith without termination'. Based on these results, a number of discussions and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 emlee5@stu.ac.kr

2018년 08월 14일 접수, 08월 26일 최종수정, 08월 28일 게재확정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role of christian church.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student, self-identity, career exploration, photo-voice research

이 논문은 2017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정책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Erikson(1968)의 생애발달이론 8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제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기에는 대인관계에 있어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인 청년기를 거쳐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는 것이다. Erikson(1968: 183, 박아청 1990에서 재인용)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개인의 영속성과 단일성 혹은 독자성과 불변성과 같은 동일성에 대한 연속적인 감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지각하며 자기에 대한 일관성과 통합성을 가지고자하는 노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박아청, 2003: 19-20, 2010: 105).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임을 감안할 때 자아정체감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Geijssel & Meijers, 2005). 자아정체감이 안정될수록 일관되고 통합된 인생 방향과 목적의식을 세울 수 있으며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면서 개인의 삶이 자기주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에는 20대 중반의 나이까지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업이 연장되었고(Long, 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기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 규범이 강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자아를 깊이있게 탐색하고 자기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자기 적성이나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선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뿐 아니라 진로지도의 부족, 성적에 맞춘 대학이나 전공 선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청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기도 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탐색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경향을 띄게 된다(김태희·김종백, 2016; 이은경 외, 2017).

Super(1990: 215)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서유란, 2012; 유혜립, 2015: 34). 개인에게 있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평생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며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개척하는가는 인간육구의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과 연결이 된다.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확립될수록 진로선택도 안정적이며 진로에 대한 태도도 성숙해질 수 있다(최은희·김순자, 2011: 753; 이송이, 2014). 그러나 자아정체감이 확립된다고 그 과정이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아정체감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의식이 시작되는 일생을 거쳐 지속되는 발달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대학생이다. 왜냐하면 대학생 시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할 수 있고,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가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준비와 전략을 발전시켜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다르게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한 후 주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학문탐구의 기회로 인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자기정체성과 진로정체성 탐색이 진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졸업예정자 10명 중 6명이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탐색 부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나래·이기학, 2012: 176)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 확립과 진로탐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를 이뤄내는데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신앙(영성)이라는 요인에 주목을 하였는데 일찍이 Erikson(1968)이 밝힌바와 같이 신앙(영성)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신념이나 세계관, 이데올로기가 청소년이나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나 질

서, 세상의 이치나 방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Long, 2012). 청소년기는 신앙에 대한 탐색이나 몰입, 회심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신앙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기존연구에서는 신앙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 진로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readgold(1999)는 자신의 직업을 초월적 부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적다고 하였고, 박종수(2014: 31)도 소명의 하위요인 중 초월적 부름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진로에 대한 소명감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며, 신앙심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황아름, 2011: 46; 이억범, 2013). 소명의식이 신앙성숙과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한다는 연구(정숙희·이혜주, 2016: 246)도 있는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로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오수진, 2011; 황인숙·오윤선, 2015).

이와 같이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양적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기독교 신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변수 간 관련성이나 유의미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에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신앙과 자아정체감, 진로탐색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지닌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헌검토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화,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내는 참여적 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로 질적연구접근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젊은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신앙지도와 사역이 점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세대들이 자아정체감을 높이고 성숙한 진로탐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신앙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검토

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Schwartz et al(2005: 207)은 자아정체감이 안정되는 것을 일컬어 ‘자아정체감 일관성’, ‘자아정체감 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안정성이 삶에서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Schwartz et al(2005: 209)은 Erikson의 자아정체감을 자아(ego), 개인(personal), 사회(social)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가장 내적인 영역으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고 부모로부터 내재화되는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기(self)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개인적 정체감’은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목적, 가치와 신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집단 속으로 개인의 자기감(sense of self)을 통합시키는 결속감이라고 설명하였다.

일군의 학자들은 자아정체감을 시공간적 차원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Geijssel & Meijers, 2005; Lichwarck-Aschoff et al., 2008). 자아정체감을 ‘시공간에 걸친 변화와 변동을 통해 유지되는 자기동일성 및 지속성’이라고 정의하거나 개인의 과거나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지속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Geijssel & Meijers, 2005). McAdams(2001)은 내러티브 자아정체감을 개념화 한 연구자로서 개인의 생애 이야기와 자아정체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주장하였다.

에릭슨의 초기 개념정의에 기초하되 자아정체감의 개념적 범주는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Marcia(1980: 111-112)는 Erikson의 이론을 토대로 ‘위기(crisis)’와 ‘관여(commitment)’라는 두 개념을 적용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을 네 가지 성취지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위기는 개인이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선택을 재고해보게 되는 격변의 시기를 의미하고, 관여는 이러한 위기를 겪고 난 후의 결과물이 어떤 역할이나 가치에 몰입하고 관여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단계의 청소년은 정체성 위기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심이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역할이나 가치에 몰입하거나 관여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고한 신념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직업 역할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정체성 유예 단계와 유사하지만 위기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예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단계의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이나 가치, 목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 자신의 미래를 주로 부모나 다른 권위의 기대나 가치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고민하거나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기보다 부모의 가치를 여과 없이 수용한다. 그 결과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단계의 청소년은 외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적 충격이 오면 쉽게 자신이 지녔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체성 유예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단계의 청소년은 현재 위기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려는 노력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이 곧 이루어지기 직전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체성 성취 상태의 청년들보다 안전성과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 단계의 경우에는 정체성 위기를 이미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은 상태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역할과 가치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어떤 일에 관여를 할지 결정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인성발달의 전 분야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신념체계가 확실하고 자기주도적인 특징이 나타나면서 자기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상황이 변화

해도 큰 동요없이 성숙한 자기정체감을 유지하게 된다.

Erikson(1968)은 정체감의 성취나 유예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지만, 정체감 혼란은 정체감 발달이 가장 미숙한 수준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정체감 상태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는데 청년 초기에는 정체감 혼미나 정체감 유실을 경험하고, 청년 후기가 되어서야 정체감 성취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eilman, 1979: 230-231).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하위요인, 유형,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복잡적이면서도 복잡한 개념이다.

한편 진로탐색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탐색이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입하기 위해, 직업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기평가나 외부탐색 활동이다(Blustein & Phillips, 1988: 206). 이 행동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결정은 주로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곽민호 2012: 20).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진로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 역량을 탐색하거나 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자아정체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er, 1990: 215; 서유란, 2012; 이은경 외, 2017: 102-104).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확립되면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며 자기 진로에 대한 목적이나 확신, 준비나 진로결정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윤희·김순자, 2011; 이송이, 2014).

진로탐색에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것이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에 대해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즉 진로결정과 관련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라는 개념은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말하며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양극단으로 나눌 수 있다(김봉환·김계현, 1997: 313).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진로결정을 연기한 상태를 말한다. 진로미결정의 정도가 심할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진로결정에 위에서 이야기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많은 국내, 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이고, 진로발달과정에 자아정체감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드러난 바 있다(Super, 1990; 228; 서유란, 2012; 손연아 외, 2014).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주도적이고 자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고, 진로태도가 성숙하다고 볼 수 있다(유혜림, 2015: 51).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충분한 탐색기를 거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부모나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과 함께, 취업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자기정체성이나 적성에 부합되는 진로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영화, 김계현, 2011).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확립 노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평생의 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확립 자체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이 직업(진로) 선택이라는 중요한 성인기 진입 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주요 영향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 대학생의 기독교 신앙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탐색

변미희·이명순(2005: 88)은 신앙은 개인의 신념이나 생활자세,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정체감과 진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환(1997)도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신앙은 발달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앙의 유무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고(김은희, 2007; 변혜복, 2008; 이억범, 2013), 자아존중감도 높다는 것이다(이억범, 2013).

이억범(2013: 103-105)은 신앙성숙도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이나 자아정체감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기가치를 긍정적으로 확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 있고, 신앙의 영향으로 청교도적 직업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명에 따라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숙희·이혜주(2016: 242-243)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며 이를 통해 성숙한 진로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학생들이 단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의식에 따라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숙희·이혜주(2016: 230)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절대적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 내 성도 간의 생활,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학봉, 1985: 53-54; 최윤영, 2012: 296). 기독교의 신앙성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하며,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인간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배은주, 2004: 180).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있어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 자기의 본성과 말, 실제의 삶을 돌아보며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자기 확신과 주도성, 자기수용성을 높이는 등 자아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신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울러(Fowler, 1984, 이재은 역, 1986)는 청년기 신앙이 비분석적인 관습적 신앙에 의존하는 단계와 주체적이고 반성적 신앙을 하는 단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년시기의 신앙이 관습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의 단계로 성장할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은 차치하고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2017)의 ‘2017년 한국대학생

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기독교 대학생 비율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12년 동일한 조사의 17.2%에 비하면 2.2% 감소된 것이다. 전반적인 기독교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개신교 대학생 중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학원복음회협의회, 2017).

신앙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대학생들의 신앙에 대한 의식과 그로 인한 자기 삶에의 영향을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대학생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대학생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실증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포토보이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1994)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연구참여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적 실천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방법이다.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수단으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느끼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연구접근법의 하나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선정한 주제에 대해 사진을 통해 그 경험을 탐색하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스토리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자발성과 참여를 통해 인식의 확장을 일으키고, 타인들과의 공유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사고를 은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탐색하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자나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Wang, 1999: 188).

이러한 장점 외에도 포토보이스 방법이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에 기반한 사회문화의 시각화 현상과 자기정체성과 이미지, 사고와 가치관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코드와도 잘 맞기 때문에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경기도 4년제 A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대학생 총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원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추천을 받은 학생을 중심으로 최종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문에는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지, 언제 모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1) 현재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경험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교회 청년부(대학부) 리더로 활동하거나 교회 생활에 열심 있는 대학생 2)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성별, 학년, 학과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학년, 신앙경험, 전공분야, 진로분야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sex	year	history of christian faith	major	vocational field on consideration	
Group1	No.1	female	3 rd	since birth	christian education	teacher
	No.2	male	3 rd	since birth	christian ministry	academia
	No.3	male	4 th	since birth	language	police officer
	No.4	male	3 rd	since middle school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5	female	1 st	since birth	christian education	teacher
Group2	No.6	male	2 nd	since middle school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7	female	1 st	since elementary school	christian education	teacher
	No.8	female	4 th	since birth	social science	social worker
	No.9	male	4 th	since birth	christian ministry	missionary

2. 자료수집

(1)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해 생소하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주제, 포토보이스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 시점에 참여자들로부터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고, 이어 자아정체감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간략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4개의 주제가 주어질 것이며 한 주에 2개씩 주제에 관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선정하며, 그 사진의 주제와 설명을 덧붙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연구질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 주제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고 진로탐색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로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추출한 질문들이다. 이 연구질문들을 기초로 연구참여자들이 포토보이스 참여를 위한 사진촬영과 의미해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주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2주제: “주변 사람(가족, 친구, 친척, 선후배 등)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3주제: “앞으로의 내 모습은? 나의 꿈은?”

4주제: “신앙은 내 삶에서 ○○○이다”

각 참여자들이 주제에 따라 1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거쳐 사진을 찾거나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집단인터뷰 시간에 준비한 사진파일과 설명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였다. 집단인터뷰는 회당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20분까지 소요되었고 그룹 별로 각각 2회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준비한 사진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 해당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진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그 제목에 따른 본인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본인은 해당 사진과 이야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였다. 동시에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의견과 소감을 나눌 수 있게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종료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가능한 참여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Wang과 Burris(1994)는 사진선정(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범주화(codifying)를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사진과 설명, 집단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듣고,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드러내고 싶었던 의미와 경험에 가장 부합한 사진을 선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된 직후 참여자들이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 신앙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일차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개인의 주제별 진

술내용을 맥락화하고 범주화하되, 집단면접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와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화하였을 때 연구질문에 따른 4개의 대주제 아래 총 18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진은 최종적으로 총 24개가 선택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추출한 주제가 전체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각 주제를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을 거쳤다.

4. 연구의 진실성 확보 및 연구 윤리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고르는 작업, 그 사진의 의미와 맥락을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사진과 그 사진을 해석하고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미와 맥락상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특성

(1)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척도1)와 진로태도성숙도 척도2)를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질적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적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공인된 척도의 결과

1)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사용

2) 이기학·한종철 (1997).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사용

에 비취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사고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질적연구이고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자기진술에 자료수집의 비중을 최대한 신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결과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보조자료로만 사용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자아정체감의 경우 9명의 참여자들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점이며, 가장 높은 점수는 4.72점, 가장 낮은 점수는 3.13점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1.59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기수용성’ 항목이었고(4.53점), 가장 낮은 항목은 ‘주도성’ 항목(3.69점)이었다.

진로태도성숙도의 경우 9명의 참여자들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4점으로 자아정체감 평균점수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진로태도성숙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4.44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3.34점으로 이 둘 간의 차이는 1.1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독립성’ 항목이었고(4.3점), 가장 낮은 항목은 ‘결정성’ 항목(3.7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참여자 소개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 참여자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1

대학 3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참여자9명 중 6번째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닌 반면에 진로태도성숙도는 참여자 중 2위로 높은 편이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며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 갈등과 불일치를 경험한다.

참여자2

대학 3학년이다. 학업에 열중하는 편이며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참여자 중 중간정도이다.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큰 그림은 가지고 있다. 가정 내, 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3

대학 4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점수는 높은 편이나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는 낮은 편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성향과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여러 집단에서 리더로 활동하다보니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다.

참여자4

대학 3학년이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독립성이 높은 편이며, 진로준비에 있어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이 높은 편이다. 성실하고 꾸준하며 경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이다.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점수가 모두 높다.

참여자5

대학 1학년이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나 아직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점수가 전체 참여자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참여자6

대학 2학년이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긍정적인 성격이지만 자기판단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다. 신앙생활을 매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은 유리한 편이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참여자7

대학 1학년이다. 자아정체감 점수가 전체 9명 중 두 번째로 높다. 다정다감하고 친구를 잘 챙기며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학교 때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웠으나 현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도 전체 그룹에서 2번째로 높다.

참여자8

대학 4학년이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소극적이던 성격이 많이 바뀌고 대학졸업

반인 지금까지 많은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검사결과가 또래 또는 후배 집단보다 낮은 편이며, 진로태도성숙도 점수도 연구 참여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내적 갈등이 깊거나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9

대학 4학년이다.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다.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방면의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그룹 내에서 자아정체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진로태도에 있어 목적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포토보이스 결과 분석

(1) 나는 누구인가?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로 ‘내가 살아 온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자기의 정체성 고민이나 진로 탐색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해하기도 했으며,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타인에 의한 평가를 받을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란을 한, 두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지와 sns사용이 익숙한 세대여서인지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해냈다.

①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고 심리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바(Schwartz et al., 2013) 본 연구참여자들을 볼 때에도 역시 자신에 대한 심리 내적 갈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적이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한 참여자는 이를 ‘철길’사진으로 표현하였다.



Figure 1. Railroad


“저는 형이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차남이지만 거의 장남처럼 뭔가 해야된다는 결정들이, 순간들이 많았고, 여기 철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결정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신학교 오기전에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다가 신학교 오면서 계속 결정하게 되고, 군대 갈때도 군목으로 갈지 운전병으로 갈지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고, 어, 뭐 그런것들의 갈림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종착역이 있는것처럼, 제 선택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순간들이 다가오고, 다가왔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이 맞는 것 같아서 찍게 됐어요”. (참여자9)

② ‘나’다운 모습이 아닌 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심리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사소하거나 큰 일에서 이르기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려 사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항상 살면서 제가 걱정이 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걱정하고, 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던지 그럴 때가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저 자신을 보면 ‘아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중략) 저는 환경이 진짜 참, 좋은 환경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외부적인 문제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아무리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제 자신 안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등감을 느끼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과 힘들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참여자2)

한 참여자는 불안한 삶은 아니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은 역할을 해내야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p>“몽골 사진인데요, 광활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속 케어를 하다보니까 팀장으로서나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맡기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나이도 있다보니까 더욱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정반대의 성향의 일을 하고 있는거예요. 저는 원래 혼자 놀러가거나 극소소의 사람과 같이 있길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중심에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아 힘들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참여자3)</p>
<p>Figure 2. Mongol-wilderness</p>	

‘나’다운 나로 살고, 나의 모습에 대한 내적 갈등이 감소되어야 긍정적이고도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을테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자기다운 모습에 대한 혼란과 갈등,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③ 구체적이진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는 나

자아정체감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온 참여자들은 자기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높은 편으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리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저의 인생은 항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 사진에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연합체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일이라 그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이라 찍게 됐어요.” (참여자9)</p>
<p>Figure 3. Bicycle- Life of diversity</p>	

“제가 그 은따 이런 걸 겪으면서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주류/비주류로 나누면 그런 비주류인 친구들은 말할 기회가 없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

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희망에서도 선생님인데, 제가 따돌림 당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대처를 잘 못해주셔가지고, 아 나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여자1)

④ 오늘의 내 모습은 가정(가족)의 영향

자아정체감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념이자 부모로부터 내재화되고 가정(가족)이라는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Schwartz et al., 2013: 35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매우 크게 영향 받아 왔으며 오늘의 자기(self)를 구성하는데 있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9는 장애가 있는 형으로 인해 부모의 기대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자기다운 자기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현재는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내는데 부족하나마 성공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단 형이 정신지체장애1급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일이 어렵고, 저는 그렇지 않으니 부모님이 볼 때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는 저 혼자이니까, (중략) 제 인생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엔 저 뿐만 아니라 형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는 좀 일찍 철이 들려고 했죠.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가 있었거든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평판도 좋았던 게 억지로라도 짜내서 착한이미지 만들려고 했던게 있어요 그게 물론 나중에 군대 가서 터졌지만... 호호호. 확실히 좀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담을 가지면, 형이 부모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면 부모님의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으로는 좀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밑바닥에는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런 것들을 군대에서 좀 이겨냈어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참여자9)

힘들지만 일관성 있게 가치를 따라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며 자기의 역할과 가치를 정하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중고등학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을 하다보니까, 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대학에 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큰지, 소중한 것인지, 저도 그 가치를 똑같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참여자3)

학창시절 매우 적극적이고 리더 역할을 오래해 온 한 참여자는 대학에서도 여전히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는 부모님의 성향과, 가정에서의 분위기로 인해 영향 받았음이 드러났다.

“공부를 끈기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학생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회나 과대나, 6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은파 이런 걸 겪으면서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주류/비주류로 나누면 그런 비주류인 친구들은 말할 기회가 없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에 부모님이나 가정환경이 미친 영향이 있어요?) 동생도 이런 성향이고 부모님도 두 분 다 막내이시긴 한데 이런 일을 잘 맡으세요. 아버지도 사업도 하시고, 어머니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항상 주도하는 그런 쪽이어서 가정도 좀 전체적으로 그래요.” (참여자1)

긍정적인 영향과 달리 부모님의 계속되는 비교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참여자도 있었다. 이 참여자는 전공 성적도 매우 높고 다방면의 활동으로 유능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나 자기확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자아정체감이나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점수도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낮게 나왔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개인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님이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거 그런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더 잘하는데, 너는 왜...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비교 당하는 게 저의 삶에 있어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애들하고...”. (참여자8)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불화가 해결되지 않자,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자의 경우는 단순히 신앙심이 떨어졌다는 차원이라기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춘기 가장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에 신앙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나가기 어려웠던 장애물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제가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지옥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빠의 모습을 본거예요.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 아빠가 슬픈 표정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세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예요. 주변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없고. 아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술을 마시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분이세요. 술 안 마실 때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부모님의 다툼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중략)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행복한 가정을 보이는데 나는 맨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데 왜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됐어요.” (참여자7)

가정의 분위기나 출생서열상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감을 키우지 못한 한 참여자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다보니 너무 관계에 몰입하는 자신으로 인해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였다.

“제가 아까 관심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3남매의 둘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빠랑 동생한테만 관심이 간다고 생각해서, 가족한테는 안그러는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좀 그런게 있어요. 내가 좀 맞춰주니까 편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러면 저를 좀 좋아해줄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게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 운 적이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닭다리 2개 밖에 없었는데 언니랑 동생 쥐, 계란도 2개 밖에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양보를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어도, 양보를 하는. 저도 집에서는 항상 양보를 하고, 사랑을 못받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5)

⑤ 도전하는 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신앙이 개인의 자기에 대한 기본 신념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신앙이 더해져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학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참여자와, 삶에서 열정을 모토로 삼는다는 참여자의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Figure 4. Climbing to the top

“20대가 되니까 교회나 고등학교 안에서만 있다가 대학을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러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도전을 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내가 그만큼 깎고 만들어야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되게 작은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원래 잘 만나서는데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 해외도 다녀오고, 낯선곳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의 성격이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경험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 (참여자8)



Figure 5. A Baseball ground-Full of Passion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되게 열정있게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있게 하는거랑 그냥 하는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것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좀 있어요. 특히 보여지는 것들, 과제물로 성과가 나는 것들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자1)

⑥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나

한 참여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자기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는 성격’이라고 답하였다. 자기 주관보다는 늘 친구나 타인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설명한 이 참여자는 실제로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도 이진술과 일치하는 점수가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항목 중 주도성 점수나 목표지향성, 주체성 점수가 다른 참여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그러면 엄청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자는 타입이라서, 다른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엄청 신경을 써요.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요. 저만의 색깔이 없는 느낌, 다른 사람이 하자는데로 쓸러가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서,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해봤어요. (중략) 제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맞춰주다보니까 저만의 어떤 특성이 없다고 느껴요. 결정장에도 있고...”. (참여자5)

자존감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관심을 매우 신경 쓰는 참여자5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타인에 대해 매우 의식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1은 매우 열정적으로 살고, 유능한 학생이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경우였다. 참여자1은 타인과 다른 삶을 살고, 뒤처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였다. 삶에서 탁월함, 남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참여자의 경우 자기정체성이나 진로태도성숙도 점수 모두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가치나 만족을 타인과의 경쟁에서의 우월성이나 타인의 평가에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봄의 꽃 하면 생각나는 꽃이 벚꽃인데 저는 00과 하면 이수영(가명) 이럴 정도로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게 있어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은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사회활동 이렇게 열심히 해 하려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모습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길을 걷는 게 두려워서, 내년에 휴학 결정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뒤처지면 어떡하지, 22살인데 이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중략) 이번에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좋으면 만나면 되는데 제가 자꾸 주변에 묻게 되더라고요, 재 어때 괜찮은 거 같애? 얼굴은 어때? 키는 어때? 이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애? 이렇게 계속 묻고 있는거예요 제가. 제가 줏대가 없구나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게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좀 힘든거 같아요. (참여자1)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주변 사람(가족, 친구, 친척, 선후배 등)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Cote, 1996).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나 가치를 규정짓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본질적인 감정과 인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하

게 답변하였는데 이는 객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인식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① 나는 항상 ‘웃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제 대학교 새내기인 참여자 7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한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웃는’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하며 스마일 사진을 내놓았다. 그녀는 이러한 이미지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웃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스스로를 웃는 역할로 가두는 어려움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저는 스마일로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잘 웃어요. 다 행복한 거예요. 학교 오는 것도 재미있고. 항상 행복하다보니깐 맨날 웃는 상이 되는거예요. 친구들도 너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애. 그러다보니 저는 안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거예요. 저는 행복해서 웃었을 뿐인데. 친구들한테 너가 웃으니까 내가 행복해져라는 말을 듣다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나는 항상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구나, 밝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관념이 박혔는지, 내가 힘들어도 웃게 되는거예요. 내가 더 힘든데, 친구들을 위해서, 웃겨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웃게 되다보니까 어찌 좀 힘들게 된거예요.” (참여자7)

같은 새내기인 참여자5도 비슷한 평가를 듣는다. 늘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남을 너무 인식하고 남에게 맞춰주다 보니 자기는 특성이 없는 그러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자5는 자아정체감 검사에서 다른 참여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특히 주도성이나 주체성 점수가 낮게 나왔다. 타인에게 자기를 늘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있는 편인데 이러한 성향을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Figure 6. A Mirror

“이 사진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찍으니까 제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거울처럼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다보니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소한 건데, 카톡을 하다보면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말투를 쓰고, 저 친구한테는 저 친구 말투를 닮아가는게 있어요... 맞춤법을 잘 쓰면 저도, ㅋㅋㅋㅋ 많이 하면 저도 많이 하고, 활발한 친구한테는 나도 활발하게, 조용한 친구한테는 저도 그렇게... 그런식으로 제가 좀 많이 사람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중략)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거 같아요. (참여자5)

참여자5는 자신이 ‘관심병’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그 보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닌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노력임을 감안할 때 참여자5는 이런 측면에서 혼란과 유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규정하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②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참여자6은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명확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기를 원하며, 현재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믿는 경우였다. 여행이든 음식주문이든, 옷차림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신과 타인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도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p>“스페인에 여행 갔을 때 숙소 가는 길에 찍은 앞에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져서 도촬한 사진이에요.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듣고 너 정말 늙었다, 애 늙은이 같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미리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어선택도 좀 늙은이 같고. 이 할아버지 사진을 찍은 게 옷을 참 잘 입으셨어요. 저도 제 멋대로, 제가 생각하는 멋대로 옷을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끔 동물원 잠바를 입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아 오빠는 정말 오빠의 패션아이덴티티가 정말 뚜렷하구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웃음)”. (참여자6)</p>
<p>Figure 7. Unique Style</p>	

참여자9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개성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을 ‘마당발’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즉 타인과 자신을 경계 짓는 울타리라고 하였다.

		<p>“저의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된 것 같고, 학교도 친구들보다는 선배들을 사귀다 보니 쪽 다 알게 되고, 교수님 조교도 보통은 대학생들이 하는데 저는 학부3학년 때 이미 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허용되는 울타리를 쳐놓고 만나고 저는 제 개인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만의 시간이나 계획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그렇다면보니 연애도 못하는 거 같은데(웃음). 제 개인적인 걸 막지 않았으면 하는...”(참여자9)</p>
<p>Figure 8. Relationship like a spider's thread</p>	<p>Figure 9. Boundary in relationship</p>	

③ 이끄는 사람 (대장/기둥)

자아정체감은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되는 다양한 환경과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 영향 받는다. 특히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교육적, 양육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참여자1은 특히 가정으로부터의 장녀역할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 상당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의 역할기대에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3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중심에 서서 일해야 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 성향은 개인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모임의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Figure 10. Thumb—an image of boss

“엄지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대장이미지 이렇게 있어요. 대장이어도 이렇게 하자 이런 것 보다는 친구들 얘기 듣고, 그럼 너 의견 너 의견 이거니까 이 의견 합쳐서 이렇게 하자 조율을 잘해서 대장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장녀다보니까 좀 장자이미지. 저한테 집중되는게 있어요. 아버지 핸드폰에도 ‘우리집 기둥’ 이렇게 써있거든요. 작년에 큰 아빠랑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울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울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1)



Figure 11. Maple tree leaves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스무 살 부터 교회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동아리나 학생회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일이 잘 진행돼’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제가 맡은 것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중추가 좀 되더라구요. 저 성향 상 나서기 싫은 게 있는데 심리검사를 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쎄는데 남들 시선 신경 많이 안 쓰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자리에서 팀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요. 그래서 좀 튼다고 생각해서 단풍잎 사진을 선택을 했구요. (참여자3)

④ 경주마 같은 사람

참여자8은 매사에 계획적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타입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 꾸준함으로 그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녀를 ‘경주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실상 본인은 ‘경주마’라는 표현을 듣고 그제서야 ‘아 내가 경주마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봤다고 한다. 참여자8은 그녀의 학업성취도나 역량에 비해 자신감이나 자기확신이 부족한 편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런 점이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청소년기 가정에서 격려받거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한데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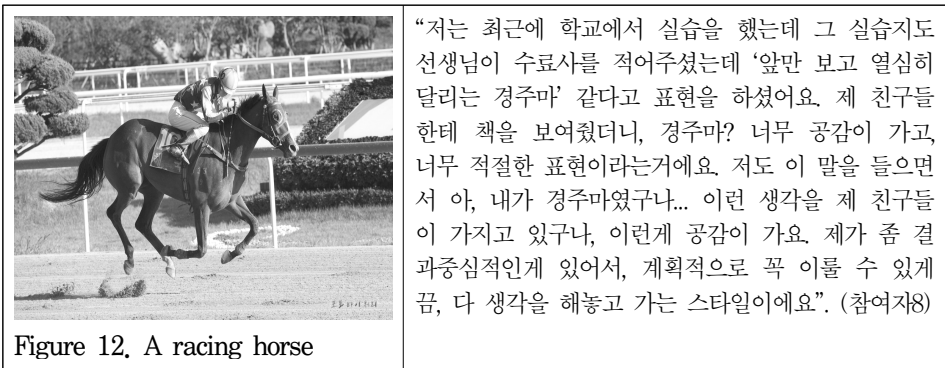




Figure 12. A racing horse

⑤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

참여자4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활동도 1학년 때부터 3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술이나 담배 등을 절제하기로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이를 잘 지켜오고 있기 때문이다.

		<p>“첫 번째 사진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1-2학년때부터 한 일자리이고, 복학하면서 다시 들어간 일자리인데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지만 만난지 얼마 안됐지만, 나에 대해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같다고 말을 해줬어요. 제 스스로도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1학년때부터 한 일이니까 나를 성실하다고 생각되요. 두 번째 사진은 좀 건전한 사람이다를 표현한 사진이에요”. (참여자4)</p>
<p>Figure 13. A person of integrity</p>	<p>Figure 14. A person of soundness</p>	

참여자4는 술이나 담배 대신 음료수나 간식을 즐기며 친구들과 모임도 참석한다고 하였다. 자기만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대인관계에서도 명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나의 미래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로 ‘(과거,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어떤 꿈을 이루기 원하는가?’에 대해 사진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고도 진지하다. 자기정체성에 대해 많은 탐색을 하고 어느 정도 정체성 성취를 이룬 사람은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단순히 부모나 사회적 기대에 부합한 결정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기의 진로에 응답은 다양했다. 아직 진로에 대한 선택이나 결정이 대부분 미완성인 단계이고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가진 경우도 많았지만 여러 참여자들이 초중고 경험과 청소년기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 신앙생활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살이 진로계획과 관련이 큰 경우

청소년기에 겪었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모두 진로 고민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의 축적의 결과로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진로결정을 완벽하게 마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러 대안들을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인 ‘정체성 유예’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자7은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의 모델을 통해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이 꿈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한 편이다.



Figure 15. A teacher

“저는 우선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정의를 못내리겠는 거예요. 원래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 확실한 오랜 꿈은 병설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진은 고3때 담임샘의 인맥을 활용해서 유치원 교사로 하루 체험한 모습이에요. 제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미래에 뭘 할지의 기준이 돈을 잘 버는 거 이런 거 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일,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감을 줄 수 있는 일 이런걸 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쫄쫄 맞는 일이 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겪어왔던 일이고, 제가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 생각을 해서”. (참여자7)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자주 다니고 도서관이 매우 익숙했던 참여자는 대학에서도 수업을 통해 자기의 관점이 크게 변화하여 진로를 연구자나 교수자로 꿈을 정하게 되었다.

3학년 1학기 때 ‘과학발전과 창의성’이라는 과목하고 ‘과학과 종교의 대화’라는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수업은 청강으로 들은 수업인데, 그 두 가지 수업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대학강의와 초중고 수업중에 가장 깊은 깨달음,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약간 회열이 느껴졌고.. 이 수업을 계기로 해서, 전에는 목회나 선교를 생각하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문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수업이었습니다. (참여자2)

다른 한 참여자는 학창시절 입시위주의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좋은 친

구를 잃었던 아픈 경험 때문에 청소년을 돕는 학교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고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이 참여자가 준비한 사진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발 사진이었는데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 마음과 함께 아동들의 아픈 상처나 힘든 일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설 수 있게 해주는 신발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참여자의 바람을 담은 사진으로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Figure 16. Children's Shoes

“저는 애가(자살한 친구가) 왜 그랬지 그게 이해가 안가고,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아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어렴풋이 학교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오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8)

참여자1은 참여자7과 같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은 같지만 좋은 경험이라기 보다 실망스러운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가 중고등 때 선생님이 대한 배신이 되게 컸어요. 저는 선생님이라면 소외된 친구를 챙겨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도 생각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고, 소외받는 친구를 오히려 선생님이 더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고, 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컸고 반발심이, 나는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내가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더 돌보고 싶은”. (참여자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과 학교 경험은 자아정체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부정적 경험이든 긍정적 경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진로선택에 있어 이상과 현실에서의 격차를 언급한 경우가 여러 명 있었다.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주로 가치 지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부양과 사회적 인정, 부모의 기대 등과 충돌하는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현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Figure 17. A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뮌헨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 의식하고 찍은 건 아닌거 같은데 앞에 스프 드시는 썬그라스 쓰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웨이터가 서빙을 하고 손으로 여기가 포크고 나이프고 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런거 보면서 이 사람은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드시는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드시는구나. 뭔가 부끄러운 마음 반, 존경의 마음 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게는 제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갖는다든지,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참여자6)

이러한 이상을 가지지만 참여자6은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³⁾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안정적인 수입, 직장,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 성당 옆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성당 앞에서는 미사를 드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고 그 옆에 레스토랑에서는 영업을 하려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음). 성당 앞에는 이렇게 목표, 휴가기간의 꿈을 찾아 온 사람들이는데 레스토랑에서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이 꼭 나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6)

3) 지면관계상 사진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관련 사진을 생략하였다.

참여자6은 위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게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에서도 하위항목 중 독립성 항목을 제외하고는 결정성이나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참여자4는 진로에 대한 확신성과 준비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였다. 처음에는 직업에 있어 ‘돈’을 매우 소중하고도 제 일의 가치로 여겼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직업가치와 직업관이 변화되었다.



Figure 18. Interconnection

“저희 아버지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관리자셔서 돈을 꽤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직업에서는 돈이 전부 아니구나, 나는 직업을 정할 때 돈만 보고 정하면 안되고, 다른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은 도서관에서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직업에서 연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닌 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쫓겨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저렇게 쫓겨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제가 군대다녀오고 성장해서 생각해보니까 돈이라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걱정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큰 걱정이 생기고 계속, 돈이랑 걱정이 비례하는 것 같아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참여자4)

(4) 신앙이 나의 정체성과 진로탐색에 미친 영향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는 ‘신앙은 내 삶에서 ○○○이다’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던져진 질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로서 각자의 삶에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신앙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사진으로 표현하고 이를 해석해냈다.

①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

신앙을 가지는 것의 여러 가지 유익 중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인간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감이 긍정적이 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책임과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참여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일들(형의 장애 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 자녀를 유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신앙이라는 것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고, 부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는 역지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참여자9)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큰 충격과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던 한 참여자에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게 된 교회는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제 중학교 2학년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거든요. 집에 항상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못보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부 미워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는 걸 그만뒀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 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중략) 학교를 다니고 친구랑 놀다보니 그 중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놀거리가 있는게 아니니까 주일이 되면 그 친구가 불러서 교회에 가고, 피씨방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 교회 간 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스무살이 되어서 청년부에 나갔더니 주위에 제 친구들은 다 안 나오고 저만 교회 나오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제가 측은해보였는지 저를 잘 챙겨줬어요. 같이 놀다보니까 제가 교회에 적을 둔게 신앙이 아니라 거기 있는 형들이 좋아서, (중략)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방향을 잡아준 게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형들을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교회에 안나갔다면 지금보다 안 좋게 살고 있을게 분명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이 사진을 첫 번째 주제사진으로 선정했어요”. (참여자6)

참여자7은 참여자6과는 경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정환경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이 더욱 성장한 경우이다. 부모의 불화로 인해 청소년기 많은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받으며 안정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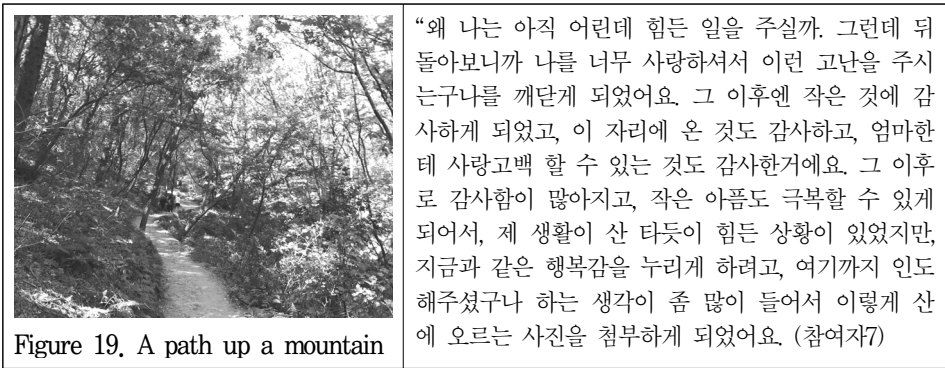


Figure 19. A path up a mountain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의 성숙은 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 성취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사실 청소년기에 사람을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었는데, 사람들을 믿다 보니 너무 제가 흔들리는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런 게 너무 질리는거예요.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래서 사람 기대면 안되겠다. 그래서 교회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자에게 기대는 거,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걸 보면 어려운 순간을 넘기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뺨이 있다”. (참여자4)

② 신앙은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내 속성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나 그 모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을 통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의 본질을 ‘크리스찬’으로 규정하며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려는 것은 큰 축복이자 신앙의 참된 가치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이 아직 대학생으로 재학중인 20대 청년들이지만 나름의 신앙 연륜과 경험을 통해 신앙이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 이자 ‘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리는 이러한 이야기말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일에 핵심적인데, 신앙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진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0. A tree-cross on barbed wire

“이 사진은 제가 순례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첫 번째 마을에서 두 번째 마을로 가는 길 사진인데 철조망에 나무십자가가 있는 사진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제 속성을 생각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크리스천인 것, 그것인거 같아요”. (참여자6)

참여자9도 신앙과 자기의 삶,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다. 말로만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를 이뤄내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Figure 21. A sincere brother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은총대를 가지고 도망쳤을 때 미리엘 주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정으로 봤을 때,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을 때 자기를 믿어 준 사람이 주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 어떤게 더 우선이나 이런 논쟁보다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모습이 좀 더 제가 추구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참여자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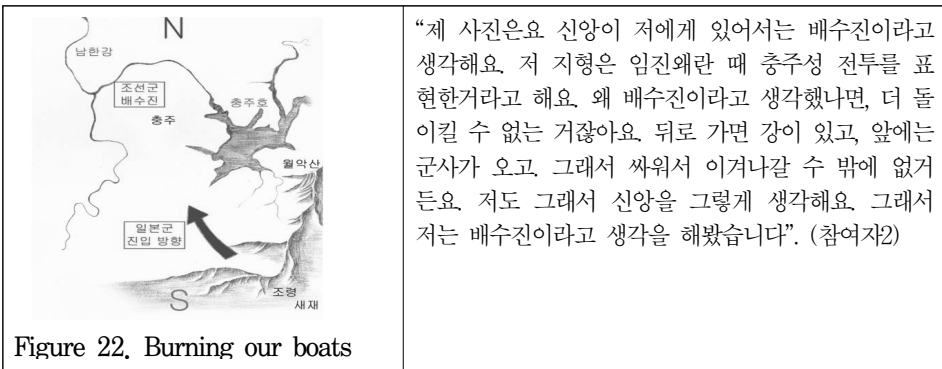
한 참여자는 신앙이 자기 삶에서 숙명,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참

여자도 철길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삶을 안내하고 이끄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저는 신앙이 제 삶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니까 나를 기댈 수 있게 해주고, 진리안에서 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제해주시기도 하고,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버팀목, 길, 방향, 신념, 근본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는데, 가장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숙명입니다. 신앙은 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거나 거부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늘 제 옆에 계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8)

“신앙은 제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은 정말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많이있구요”. (참여자3)

참여자3의 고백과 비슷하게 앞 뒤 더 나아가거나 물러갈 곳이 없는 ‘배수진’으로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배수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국어사전, 2018), ‘목숨을 걸고 일을 도모하는 결연한 자세를 비유하는 말’(다음 백과사전, 2018)이다. 참여자3은 자신에게 있어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붙들고 가야하는 그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나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 신앙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초등학교 이후, 또는 중학교 이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앙의 년수는 다양했지만, 각기 신앙생활을 통해 회심의 경험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태도, 성향, 언어습관, 관점 등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 경험을 했으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바뀐 참여자들도 여러 명 발견할 수 있었다.



Figure 23. light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친구가 엄청 어려워져서 욕을 해도 제가 맞장구 치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친구처럼 엄청 어두운 환경 속에서 친구가 한 개라도 빛을 내면 그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제 어두웠던 생활이 밝게 빛나는 거 같아서 이 사진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 자신이 스스로 가장 느끼는 거는 내가 달라졌더라는 걸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한 번씩 물어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내 생활이, 태도가 달라져 보여서 그 친구들도”. (참여자7)

“제가 확실히 나서지 않는 성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오히려 나서고 있는? 중고 등부 회장, 찬양 리더도 하고 이런거요. 고3때도 새벽기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졸다가 중점까지 갔다 학교 늦고.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너 왜 이렇게 늦냐, 뭐 일 있냐 이럴 정도로... 그 땐 사실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공부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 하셨는데, 미련 없이 10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8)

신앙이 없었다면 무미건조하고 목적이 없는 그저 그런 삶이었을 거라는 참여자와, 신앙은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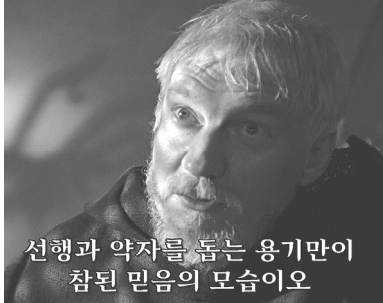
“원동력이라는 의미는, 신앙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더라는 걸 많이 느껴요. 관계 속에서 도 그렇고, 음,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나

도 미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1)

④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영향을 미친 신앙

결국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견디고, 새로운 꿈을 찾으려 하며, 이전의 성격이나 나쁜 습관, 태도를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는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해보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이러한 영향이 진행중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원래는 경제적인 게 컸거든요, 엄마가 교사하면 시집 잘 간다고(웃음), 맨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어려서 경제적 관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뿌듯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소라”라고 했을 때 “아 그 선생님, 그 분 나한테 이랬던 분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여자7)

	<p>“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 전반적인 내용이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중세시대거든요. 그 시대 관념으로는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근데 전쟁에 갔더니 십자군 사람들이 자기랑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거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기 위해 왔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제가 너무 스킵해서 말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신부에게 물어봤을 때 ‘선행과 약자를 돕는 용기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참여자9)</p>
<p>Figure 24. Faith based on doing</p>	

참여자9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신앙과 신학관이 뚜렷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길, 누구나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목회나 선교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 자체를 자신의 신앙관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참여자1도 현재 자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확신이 높은 편이다. 졸업 후 어떤 분야로 가게 될지도 거의 정해진 상태이다. 이 참여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소년기 신앙안에서 기도하고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솔직히 이 학교에 오게 된 거 자체가 기도응답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학교에 붙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학년부터 교육에 관련 된 일을 터주시는 것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참여자1)

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 교회에 다니다가도 중도에 어떤 이유로든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켰던 경우로서 그 꾸준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비중이 큰데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어도 그냥 다녔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큰 계기는 없었고, 저도 어디서부터 신앙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가장 큰 거는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임원이거나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기쁜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6)

“10대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던 시기 같아서... 한 목사님이 다윗이 어릴때부터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10대 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내 인생에 후회도 더 없고, 그게 기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참여자8)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때로는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훈계를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는 야간자율학습 안하고 교회가면 너 수능 언제 준비하나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도 있었고, 주일이나 토요일에도 따로 자유시간을 쓰거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략) 회의감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지 못할까...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어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모든 삶을 드러보자, 그런 시간 뿐 만 아니라, 주중에 있어서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이런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2)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나는 여대 뭐한건가... 이래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일이니깐 이리면서 하고 있는거죠’.. (참여자8)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다니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교회로부터,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거나 부담이나 상처를 받기도 한다.

“원래부터 유치원 교사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교육과를 들어오다보니까 이제 더 크게 나오는거예요. 그럼 유치부 설교를 해라, 그런데 저는 아직 생각을 키우는 수업을 듣고 있지, 기독교교육에 대해 아직 아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이거하자 저거하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거예요. 제가 거절을 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못하고 순종하는 스타일이예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가려고하다보니 너무 지치는거예요. 저도 할 일도 많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하는데..” (참여자7)

제가 모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본 결과, 그때는 헌신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건 기쁜일인데, 그 가운데 너~무 사람들한테 요구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걸 따라야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학생부서가 부흥해야 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나자빠지는 것 같은거예요.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결국에는 나쁜 의도는 아닌걸 알겠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는데 그런말 때문에. 누구좋자고 하는걸까. (참여자9)

신앙의 성숙도와 표현 모습은 각 개인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신앙은 개인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 모두에 직접, 간

접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여적 실천 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총9명의 기독교 대학생들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진로, 신앙에 대해 4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각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선택해서 그 사진에 주제를 붙이고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기초로 각 그룹당 2회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 대주제에 관한 사진은 총 24개의 사진이 선택되었고, 주제묶음은 18개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참여자들 대부분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 상에서 자기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으며 청소년기를 보내왔고, 현재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진행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지키기 원하는 가치와 원칙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성향과 성품, 가정환경과 학창시절의 경험이 오늘의 자기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라는 주제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들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게 하였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관련한 사진들이 많이 제시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주로 관계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끌어주는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설명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미지, 리더의 이미지, 성실하고 건전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같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세 번째 주제인 ‘나의 미래는?’이라는 주제에서는 주로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활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상 교사, 사회복지사, 선교사역자가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세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갈등이나 혼란 속에서 막연한 계획인 경우도 있었다. 미래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에 부합하거나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보였고, 미래의 진로계획에 대한 자기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 주제인 ‘나에게 신앙은 000이다’라는 주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드러났다. 신앙은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었고, 자기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속성이며,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신앙이라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또한 신앙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오늘의 자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켜 준 힘이라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기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기독교대학생들의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및 청년 사역자들을 포함한 교회는 기독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강조한 바대로 개인에게 자아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고 특히 청소년기 및 청년기에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아정체감이 안정될수록 인생 방향과 목적을 일관되게 세울 수 있으며,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독특성을 인식하면서 개인의 삶이 자기주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청소년기 생활과 적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정에 치우친 인식들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유실을 경험하게 될 진로지도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혼란과 부적절한 진로정체감이 대학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성급함이나 즉흥성, 돈이나 지위 가치 위주의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기존연

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주지해 볼 때 기독교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미래시대의 중추로 키워야 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책임이 크다 하겠다. 교회는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및 청년들의 양육과 신앙지도에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자들이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관련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한다면 신앙의 성숙과 함께 성숙하고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기독교인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기반한 진로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들도 ‘돈’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반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소명감을 기반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깊이있고 명확하게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직업세계에 적용하여 가르침을 받거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과제이자 고민으로 남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와 같이 세상(사회)의 가치관과 이분화된 것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인식적으로나 생활세계에서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의 가르침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도그마적 교리에 갇혀 그 가르침만을 강요하는 답답한 교회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술, 담배, 재정사용, 이성관계, 직업에 대한 선택, 가정관 등 전반적으로 갈등하고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태의 참여자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다. 또한 이전처럼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봉사와 예배참석,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을 잘 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강해질 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 및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 세대에 맞는 문화코드를 적용하고 입시 스트레스 및 사회문제(자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청년빈곤 등)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고

등학교 시기에 교회에 진입하는 학생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의 교회이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의 문화코드를 잘 인식해서 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20~30년 전만해도 기타를 배우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출입하게 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화코드가 현재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부의 가치를 전부인 것처럼 인정하는 사회문화속에서 생활 상의 여러 아픔이나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조건 없이 따뜻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때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전 세대의 문화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러한 사랑과 돌봄의 역할을 기독교적 사랑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한다면 이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일과 장소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로는 마음을 담아 즐겁게 할 일과 갈 곳도 없는 이 자본주의 현대화 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적, 정신적 기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 이성관계, 상대적 박탈감, 낮은 자존감 등의 주제는 생각보다 상담할 곳이 많이 부족하다. 청년들이 학비나 생활비로 인한 빚이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교회에서 이러한 분야의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실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교회는 이러한 모든 사역이 단지 국가나 복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도 역량이 되는데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넷째, 기독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영성훈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다행히도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경험적 차원에서 밝혀졌지만, 신앙 자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청년세대를 볼 때 성숙한 신앙은 차치하고라도 기독대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으며, 의식과 생활 전반에서도 기독대학생과 비기독교 대학생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응답한 기독대학생은 20.3%, 비기독교 대학생은 24.8%,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기독대학생은 21.7%, 비기독교 대학생 24.1%로 크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신앙이 이들의 삶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영향력을 점차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믿으나 안 믿으나 불안과 부정적 심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할의 부적절함과 부족함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준다. 기독교대학생 중 거의 30%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학원복음화협의회, 2017)는 교회에서 영적으로나 심리정서적, 현실적으로 얻을 도움이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신앙이 긍정적 자기상을 형성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정학봉, 1985: 53-54; 최윤영, 2012: 296)와 같이 교회는 기독교대학생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이들 개개인의 내적, 외적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이 A기독교대학생들로 한정되어 다른 기독교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기독교대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후속연구에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대학생들과의 질적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애착, 학교진로지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wak, M. H. (2012).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ion-behavior,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parent's attachment and career support from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축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0(6), 73-102.
- [Kim, G. Y. (2013). A Status and Narrative Approach in the Korean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Cross-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3-102.]
- 김나래 ·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75-191.
- [Kim, N. R. and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175-191.]
- 김봉환 ·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Kim, B. H. and Kim, K.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김영화 ·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69-182.
- [Kim, Y. H. and Kim, K. H. (2011).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Ego-identity Achieved and Foreclosed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19(1), 169-182.]
- 김영환 (1997). 기독교 신앙유무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Y.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Faith and Self-Identity.*

-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은희 (2007). **크리스찬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E. H. (2007). *The Effect on fear of faith maturity and Self-Identity of Christian Adolescent*.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종백·김태희 (2014). 자아정체감 탐색 도구로서 내러티브 접근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청소년학 연구**, 21(8), 463-493.
- [Kim, J. B. and Kim, T. H. (2014). Narrative as a Vehicle for Exploring Ego-identity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463-493.]
- 김재휘 (2004). **기독교대학생의 신앙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W. (2004). *A Study on Faith and Self-Ident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태희 (2015).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T. H. (2015). *An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 Identity Based on the Narrative Identity*.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김태희·김종백 (2016).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교육심리연구**, 30(1), 1-25.
- [Kim, T. H. and Kim, J. B. (2016). An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 Identity Based on the Narrative Ident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1), 1-25.]
- 박종수 (2014). **진로소명 하위차원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태도 성숙 및 삶의 만족에서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J. S. (2014). *Clusters by subtypes of calling, self-reflection and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Park, A. C. (1990). **World of Identity**. Seoul: Kyoyookbook, Korea.]
- 박아청 (2003). **정체감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학지사
- [Park, A. C. (2003). *Prospect and Tasks of Identity Research*. Seoul: Hakjisa. Korea.]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Park, A. C. (2010). *Human Understanding of Erickson*: Kyoyookbook, Korea.]

- 변미희 · 이명순 (2005). 청소년의 종교 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저널**, 8(3), 81-102.
[Beoun, M. H. and Lee,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igious Life and Sexuality: Awareness among Juveniles, *Baeksok Journal*, 8(3), 81-102.]
- 변혜복 (2008).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신앙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oun, H. B. (200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hristian teenagers' self-esteem and their christian life*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Korea.]
- 배은주 (2004).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의 관계 연구. **복음과 상담**, 3, 178-189.
[Bae, E. J. (2004).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Faith Mutuality and Self Esteem in Korean Theologic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3, 178-189.]
- 서유란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Seo, Y. R. (2012).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Korea.]
- 손연아 · 신수지 ·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Son, Y. A. Sin, S. J., & Son, E. Y. (2014).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Career Education*, 27(1), 109-125.]
- 오수진 (2011).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Oh, S. J. (2011). *Effect of Faith maturity and sense of the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Myonggi University, Korea.]
- 유혜림 (2015). **전문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You, H. L. (2015).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Korea.]
- 이기학 ·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Lee, K. H. & Han, J. C. (1997). Tools for Validation of Inventory On Career Attitud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8, 219-255.]
-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Lee, S. Y. (2014). The Effects of Self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1), 109-128.]
- 이억범 (2013).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총**, 17, 93-107.
- [Lee, E. B. (2013).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with the Faith Matur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17, 93-107.
- 이은경 · 신아라 · 김선경 · 이용택 (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중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0, 92-112
- [Lee, E. K., Shin, A. R., Kim, S. K., & Lee, E. T.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go-Identity and Career-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Analysis. *Forum for Youth Culture*, 50, 92-112.]
- 이재은 역 (1986). **신앙의 단계들**.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Lee, J. E. (1986). *Stages of Faith*. Seoul: Korea Christian Publisher. Trans.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정숙희 · 이혜주 (2016).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225-253.
- [Jung, S. H. & Lee, H. J.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alling in a Relationship between the Spiritual Maturity and Career Maturity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2), 225-253.]
- 정학봉 (1985).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 서울: 요단.
- [Jung, H. B (1985). *First Step for Christian Faith*. Seoul: Jodan.]
- 최윤영 (2012).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기독교 영성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3), 293-317.
- [Choi, Y. Y. (2012). A Study on Faith Maturity and Ego-Identity of the Students. *Faith & Scholarship*, 17(3), 293-317.]
- 최윤희 · 김순자 (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43-762.
- [Choi, Y. H & Kim, S J. (2011). The Influence of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on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43-762.]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글로
벌리서치, 목회사회학연구소.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2). *A Study on Perception and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2012*. Global Research & Pastoral Sociology Institute Korea.]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지앤
컴리서치, 목회사회학연구소.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A Study on Perception and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2017*. Ji & Com Research & Pastoral Sociology Institute
Korea.]
- 황아름 (2011).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 및 진로결정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관
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wang, A. R. (2011) *The Relation of 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christian
adolescence's faith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 황인숙 · 오윤선 (2015). 영적성숙도와 진로미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연구: 기독교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1), 343-372.
- [Hwang, I. S. & Oh, Y. S. (2015).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Spiritual Maturity and
Career Future - Focusing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1), 343-372.
- Blustein, D.L. & Phillips, S. D (1988).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in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2):203-216
- Cote, J. E.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identity formation: The culture-identity
link and identity capital. *Journal of Adolescence*, 19(5), 417-42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eijsel, F., & Meijers, F. (2005). Identity learning: the core process of educational
change. *Educational Studies*, 31(4), 419-430.
- Lichwarek-Aschoff, A., van Geert, P., Bosma, H., & Kunnen, S. (2008). Time and
identity: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theory formation. *Developmental Review*,
28(3), 370-400.
- Long,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Formation and Faith Maturity*,
Electronic Thesis, Treatises and Dissertations, The Graduate School, Florida
State Universit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 J. (Ed). (1980).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Wiley, 109-137.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eilman, P. W. (1979). Cross-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30-231.
- Schwartz, S. J., Cotter, J. E., & Arnett, J. (2005). Identity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Two developmental routes in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Youth & Society*, 37, 201 - 229.
- Schwartz, S. J., Donnellan, M. B., Ravert, R. D., Luyckx, K., & Zamboanga, B. L. (2013). Identity development,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recent advances. In R. M. Lerner, M. A. Easterbrooks, J. Mistry,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39-364).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et al.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readgold, R. (1999). Transcendent vocation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 Wang, C., and Burris, M. A.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p. 171-186.
- Wang,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 포토보이스의 적용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여적 실천 연구인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총9명의 기독교 대학생들과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진로, 신앙에 대해 4가지 연구주제를 가지고 각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선택해서 그 사진에 주제를 붙이고 내용을 설명한 결과, 4가지 대주제에 관한 사진은 총 24개의 사진이 선택되었고, 주제묶음은 18개로 분류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는 6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되었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나’, ‘나다운 모습이 아닌 나’, ‘구체적이진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는 나’, ‘도전하는 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신경을 쓰는 나’ 등이다. 두 번째 주제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는 5개의 주제묶음으로 분류되었다. ‘나는 항상 웃는 사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이끄는 사람’, ‘경주마 같은 사람’,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 등이다. 세 번째 주제인 ‘나의 미래는?’에서는 ‘청소년기 경험과 대학생활이 진로계획과 관련이 큰 경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2개의 주제묶음이 나타났다. 네 번째 주제인 ‘나에게 신앙은 000이다’는 5개의 주제묶음이 나타났다.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 ‘신앙은 나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자 내 속성’, ‘나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 신앙’,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에 영향을 미친 신앙’,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이 자기정체감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기독교대학생들의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논의,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생, 자아정체감, 진로탐색, 신앙, 포토보이스 연구